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조동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321호 [부제 제25464호] 주제 105 (2016)년 11월 16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설

## 사회주의조선의 미래를 가꾸는 어머니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

충청의 2001년도의 자랑찬 성과  
소식과 북면령에서 울려나오는 동로  
당만세소리로 온 나라 강산이 세차  
게 화려해지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어  
머니님을 맞이하고 있다.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하여 경축분위기  
는 더욱더 고조되고 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첫걸음마다 떠여  
준 고향집드락을 조국의 소중한 모  
습으로 새겨안고 역세계 차단과 이  
나라 수천만 아들딸들이 조국보위조  
소와 혁신으로 둘째는 일터, 경찰을  
에서 어머니들에게 끄러운 존경을 담아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있다.

온 나라 전체 어머니들은 자신들  
의 존엄과 운명을 최우선으로 용려해  
위주신 백두산성세 위인 물끼 삼가  
큰절을 울리고 있으며 조국과 인민 앞  
에 지닌 선군시대 어머니로서의 책임  
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불라는 절의  
에 담겨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녀성들은 혁명의 한족수  
례방위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  
량입니다.』

창구한 우리 혁명의 역사에는 창  
인인 의지로 온갖 풍파를 뛰어넘어  
언제나 당과 운명을 같이하여온 어머  
니들의 국애충정의 성스러운 자우이  
역백의 새겨져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와  
김정일동지께서 한평생 여성들을  
庇 있는 럭방으로 내세우고 우리 어  
머니들의 자주적 존엄과 참다운 삶을  
위하여 코나큰 도고를 바쳐오시였  
다. 위대한 수령님들로 높이 모시여  
민족적역사와 정치적무역, 사회적  
봉변등과 봉건적구속에서 벗어나면  
우리 어머니들을 비롯한 여성들의 운  
명과 지위, 사상정신적풍모와 역할에  
서는 근본적인 절환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이 런데에는 여성존중의 새 력  
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온 나라 어머

니들의 정치적생명으로부터 생활상  
문제에 이르기까지 따뜻이 보살펴  
주시고 그들의 자그마한 소행도  
깊이 평가하고 내세워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수많  
은 어머니들이 시대의 영광으로,  
포르자로, 혁신으로 보람을 삼을 누  
리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  
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어머니들이  
나라의 부강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  
를 위하여 현신하는 나리성으로 살  
아 일하도록 이끌어주고자 한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에 대한  
사랑과 친심은 조국과 민족앞에 지  
닌 세대적책임감과 잊혀있었는것으  
로 하여 더없이 숭고하다. 자식들을  
당과 수령께 꿈을 이룰하고 조국  
과 인민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  
는 창원인간 혁명가로 기우는게 차  
기 가장의 행복도, 민족의 앞날도 있

다는것이 우리 어머니들이 지난 고  
집한 행복과 함께 미래 판이다. 이런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선군조선  
을 떠받드는 역할 기둥들로 기우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쌓아기며  
자식들을 많이 낳아기로 어머니들을  
모성령으로 내세워 주신분도 우리

친수님이시다. 조선인민군 제2차 군  
인기족임 성사대회 참가자들 앞에 서  
하신 연설에서 군관의 애를 통해  
우리 민족의 장래를 떠미고나온  
우리 후대들의 달성을 기우기 바  
쳐고 있다. 아들딸들로 조국보위조  
소에 세우고 자식들이 조국의 영예를  
빛내는것을 키키나온 자랑으로, 행복  
으로 어기는것을 키키나온 어머니들이  
된다. 품을 풀어가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선군조선  
을 떠받드는 역할 기둥들로 기우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쌓아기며  
자식들을 많이 낳아기로 어머니들을  
모성령으로 내세워 주신분도 우리

친수님이시다. 조선인민군 제2차 군  
인기족임 성사대회 참가자들 앞에 서  
하신 연설에서 군관의 애를 통해  
우리 민족의 장래를 떠미고나온  
우리 후대들의 달성을 기우기 바  
쳐고 있다. 아들딸들로 조국보위조  
소에 세우고 자식들이 조국의 영예를  
빛내는것을 키키나온 자랑으로, 행복  
으로 어기는것을 키키나온 어머니들이  
된다. 품을 풀어가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선군조선  
을 떠받드는 역할 기둥들로 기우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쌓아기며  
자식들을 많이 낳아기로 어머니들을  
모성령으로 내세워 주신분도 우리

친수님이시다. 조선인민군 제2차 군  
인기족임 성사대회 참가자들 앞에 서  
하신 연설에서 군관의 애를 통해  
우리 민족의 장래를 떠미고나온  
우리 후대들의 달성을 기우기 바  
쳐고 있다. 아들딸들로 조국보위조  
소에 세우고 자식들이 조국의 영예를  
빛내는것을 키키나온 자랑으로, 행복  
으로 어기는것을 키키나온 어머니들이  
된다. 품을 풀어가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선군조선  
을 떠받드는 역할 기둥들로 기우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쌓아기며  
자식들을 많이 낳아기로 어머니들을  
모성령으로 내세워 주신분도 우리

친수님이시다. 조선인민군 제2차 군  
인기족임 성사대회 참가자들 앞에 서  
하신 연설에서 군관의 애를 통해  
우리 민족의 장래를 떠미고나온  
우리 후대들의 달성을 기우기 바  
쳐고 있다. 아들딸들로 조국보위조  
소에 세우고 자식들이 조국의 영예를  
빛내는것을 키키나온 자랑으로, 행복  
으로 어기는것을 키키나온 어머니들이  
된다. 품을 풀어가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선군조선  
을 떠받드는 역할 기둥들로 기우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쌓아기며  
자식들을 많이 낳아기로 어머니들을  
모성령으로 내세워 주신분도 우리

친수님이시다. 조선인민군 제2차 군  
인기족임 성사대회 참가자들 앞에 서  
하신 연설에서 군관의 애를 통해  
우리 민족의 장래를 떠미고나온  
우리 후대들의 달성을 기우기 바  
쳐고 있다. 아들딸들로 조국보위조  
소에 세우고 자식들이 조국의 영예를  
빛내는것을 키키나온 자랑으로, 행복  
으로 어기는것을 키키나온 어머니들이  
된다. 품을 풀어가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선군조선  
을 떠받드는 역할 기둥들로 기우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쌓아기며  
자식들을 많이 낳아기로 어머니들을  
모성령으로 내세워 주신분도 우리

친수님이시다. 조선인민군 제2차 군  
인기족임 성사대회 참가자들 앞에 서  
하신 연설에서 군관의 애를 통해  
우리 민족의 장래를 떠미고나온  
우리 후대들의 달성을 기우기 바  
쳐고 있다. 아들딸들로 조국보위조  
소에 세우고 자식들이 조국의 영예를  
빛내는것을 키키나온 자랑으로, 행복  
으로 어기는것을 키키나온 어머니들이  
된다. 품을 풀어가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선군조선  
을 떠받드는 역할 기둥들로 기우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쌓아기며  
자식들을 많이 낳아기로 어머니들을  
모성령으로 내세워 주신분도 우리

친수님이시다. 조선인민군 제2차 군  
인기족임 성사대회 참가자들 앞에 서  
하신 연설에서 군관의 애를 통해  
우리 민족의 장래를 떠미고나온  
우리 후대들의 달성을 기우기 바  
쳐고 있다. 아들딸들로 조국보위조  
소에 세우고 자식들이 조국의 영예를  
빛내는것을 키키나온 자랑으로, 행복  
으로 어기는것을 키키나온 어머니들이  
된다. 품을 풀어가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선군조선  
을 떠받드는 역할 기둥들로 기우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쌓아기며  
자식들을 많이 낳아기로 어머니들을  
모성령으로 내세워 주신분도 우리

친수님이시다. 조선인민군 제2차 군  
인기족임 성사대회 참가자들 앞에 서  
하신 연설에서 군관의 애를 통해  
우리 민족의 장래를 떠미고나온  
우리 후대들의 달성을 기우기 바  
쳐고 있다. 아들딸들로 조국보위조  
소에 세우고 자식들이 조국의 영예를  
빛내는것을 키키나온 자랑으로, 행복  
으로 어기는것을 키키나온 어머니들이  
된다. 품을 풀어가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선군조선  
을 떠받드는 역할 기둥들로 기우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쌓아기며  
자식들을 많이 낳아기로 어머니들을  
모성령으로 내세워 주신분도 우리

친수님이시다. 조선인민군 제2차 군  
인기족임 성사대회 참가자들 앞에 서  
하신 연설에서 군관의 애를 통해  
우리 민족의 장래를 떠미고나온  
우리 후대들의 달성을 기우기 바  
쳐고 있다. 아들딸들로 조국보위조  
소에 세우고 자식들이 조국의 영예를  
빛내는것을 키키나온 자랑으로, 행복  
으로 어기는것을 키키나온 어머니들이  
된다. 품을 풀어가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선군조선  
을 떠받드는 역할 기둥들로 기우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쌓아기며  
자식들을 많이 낳아기로 어머니들을  
모성령으로 내세워 주신분도 우리

친수님이시다. 조선인민군 제2차 군  
인기족임 성사대회 참가자들 앞에 서  
하신 연설에서 군관의 애를 통해  
우리 민족의 장래를 떠미고나온  
우리 후대들의 달성을 기우기 바  
쳐고 있다. 아들딸들로 조국보위조  
소에 세우고 자식들이 조국의 영예를  
빛내는것을 키키나온 자랑으로, 행복  
으로 어기는것을 키키나온 어머니들이  
된다. 품을 풀어가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선군조선  
을 떠받드는 역할 기둥들로 기우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쌓아기며  
자식들을 많이 낳아기로 어머니들을  
모성령으로 내세워 주신분도 우리

친수님이시다. 조선인민군 제2차 군  
인기족임 성사대회 참가자들 앞에 서  
하신 연설에서 군관의 애를 통해  
우리 민족의 장래를 떠미고나온  
우리 후대들의 달성을 기우기 바  
쳐고 있다. 아들딸들로 조국보위조  
소에 세우고 자식들이 조국의 영예를  
빛내는것을 키키나온 자랑으로, 행복  
으로 어기는것을 키키나온 어머니들이  
된다. 품을 풀어가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선군조선  
을 떠받드는 역할 기둥들로 기우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쌓아기며  
자식들을 많이 낳아기로 어머니들을  
모성령으로 내세워 주신분도 우리

친수님이시다. 조선인민군 제2차 군  
인기족임 성사대회 참가자들 앞에 서  
하신 연설에서 군관의 애를 통해  
우리 민족의 장래를 떠미고나온  
우리 후대들의 달성을 기우기 바  
쳐고 있다. 아들딸들로 조국보위조  
소에 세우고 자식들이 조국의 영예를  
빛내는것을 키키나온 자랑으로, 행복  
으로 어기는것을 키키나온 어머니들이  
된다. 품을 풀어가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선군조선  
을 떠받드는 역할 기둥들로 기우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쌓아기며  
자식들을 많이 낳아기로 어머니들을  
모성령으로 내세워 주신분도 우리

친수님이시다. 조선인민군 제2차 군  
인기족임 성사대회 참가자들 앞에 서  
하신 연설에서 군관의 애를 통해  
우리 민족의 장래를 떠미고나온  
우리 후대들의 달성을 기우기 바  
쳐고 있다. 아들딸들로 조국보위조  
소에 세우고 자식들이 조국의 영예를  
빛내는것을 키키나온 자랑으로, 행복  
으로 어기는것을 키키나온 어머니들이  
된다. 품을 풀어가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선군조선  
을 떠받드는 역할 기둥들로 기우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쌓아기며  
자식들을 많이 낳아기로 어머니들을  
모성령으로 내세워 주신분도 우리

친수님이시다. 조선인민군 제2차 군  
인기족임 성사대회 참가자들 앞에 서  
하신 연설에서 군관의 애를 통해  
우리 민족의 장래를 떠미고나온  
우리 후대들의 달성을 기우기 바  
쳐고 있다. 아들딸들로 조국보위조  
소에 세우고 자식들이 조국의 영예를  
빛내는것을 키키나온 자랑으로, 행복  
으로 어기는것을 키키나온 어머니들이  
된다. 품을 풀어가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선군조선  
을 떠받드는 역할 기둥들로 기우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쌓아기며  
자식들을 많이 낳아기로 어머니들을  
모성령으로 내세워 주신분도 우리

친수님이시다. 조선인민군 제2차 군  
인기족임 성사대회 참가자들 앞에 서  
하신 연설에서 군관의 애를 통해  
우리 민족의 장래를 떠미고나온  
우리 후대들의 달성을 기우기 바  
쳐고 있다. 아들딸들로 조국보위조  
소에 세우고 자식들이 조국의 영예를  
빛내는것을 키키나온 자랑으로, 행복  
으로 어기는것을 키키나온 어머니들이  
된다. 품을 풀어가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선군조선  
을 떠받드는 역할 기둥들로 기우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쌓아기며  
자식들을 많이 낳아기로 어머니들을  
모성령으로 내세워 주신분도 우리

친수님이시다. 조선인민군 제2차 군  
인기족임 성사대회 참가자들 앞에 서  
하신 연설에서 군관의 애를 통해  
우리 민족의 장래를 떠미고나온  
우리 후대들의 달성을 기우기 바  
쳐고 있다. 아들딸들로 조국보위조  
소에 세우고 자식들이 조국의 영예를  
빛내는것을 키키나온 자랑으로, 행복  
으로 어기는것을 키키나온 어머니들이  
된다. 품을 풀어가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선군조선  
을 떠받드는 역할 기둥들로 기우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쌓아기며  
자식들을 많이 낳아기로 어머니들을  
모성령으로 내세워 주신분도 우리

친수님이시다. 조선인민군 제2차 군  
인기족임 성사대회 참가자들 앞에 서  
하신 연설에서 군관의 애를 통해  
우리 민족의 장래를 떠미고나온  
우리 후대들의 달성을 기우기 바  
쳐고 있다. 아들딸들로 조국보위조  
소에 세우고 자식들이 조국의 영예를  
빛내는것을 키키나온 자랑으로, 행복  
으로 어기는것을 키키나온 어머니들이  
된다. 품을 풀어가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선군조선  
을 떠받드는 역할 기둥들로 기우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쌓아기며  
자식들을 많이 낳아기로 어머니들을  
모성령으로 내세워 주신분도 우리

친수님이시다. 조선인민군 제2차 군  
인기족임 성사대회 참가자들 앞에 서  
하신 연설에서 군관의 애를 통해  
우리 민족의 장래를 떠미고나온  
우리 후대들의 달성을 기우기 바  
쳐고 있다. 아들딸들로 조국보위조  
소에 세우고 자식들이 조국의 영예를  
빛내는것을 키키나온 자랑으로, 행복  
으로 어기는것을 키키나온 어머니들이  
된다. 품을 풀어가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선군조선  
을 떠받드는 역할 기둥들로 기우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쌓아기며  
자식들을 많이 낳아기로 어머니들을  
모성령으로 내세워 주신분도 우리

친수님이시다. 조선인민군 제2차 군  
인기족임 성사대회 참가자들 앞에 서  
하신 연설에서 군관의 애를 통해  
우리 민족의 장래를 떠미고나온  
우리 후대들의 달성을 기우기 바  
쳐고 있다. 아들딸들로 조국보위조  
소에 세우고 자식들이 조국의 영예를  
빛내는것을 키키나온 자랑으로, 행복  
으로 어기는것을 키키나온 어머니들이  
된다. 품을 풀어가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선군조선  
을 떠받드는 역할 기둥들로 기우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쌓아기며  
자식들을 많이 낳아기로 어머니들을  
모성령으로 내세워 주신분도 우리

친수님이시다. 조선인민군 제2차 군  
인기족임 성사대회 참가자들 앞에 서  
하신 연설에서 군관의 애를 통해  
우리 민족의 장래를 떠미고나온  
우리 후대들의 달성을 기우기 바  
쳐고 있다. 아들딸들로 조국보위조  
소에 세우고 자식들이 조국의 영예를  
빛내는것을 키키나온 자랑으로, 행복  
으로 어기는것을 키키나온 어머니들이  
된다. 품을 풀어가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선군조선  
을 떠받드는 역할 기둥들로 기우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쌓아기며  
자식들을 많이 낳아기로 어머니들을  
모성령으로 내세워 주신분도 우리

친수님이시다. 조선인민군 제2차 군  
인기족임 성사대회 참가자들 앞에 서  
하신 연설에서 군관의 애를 통해  
우리 민족의 장래를 떠미고나온  
우리 후대들의 달성을 기우기 바  
쳐고 있다. 아들딸들로 조국보위조  
소에 세우고 자식들이 조국의 영예를  
빛내는것을 키키나온 자랑으로, 행복  
으로 어기는것을 키키나온 어머니들이  
된다. 품을 풀어가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선군조선  
을 떠받드는 역할 기둥들로 기우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쌓아기며  
자식들을 많이 낳아기로 어머니들을  
모성령으로 내세워 주신분도 우리

친수님이시다. 조선인민군 제2차 군  
인기족임 성사대회 참가자들 앞에 서  
하신 연설에서 군관의 애를 통해  
우리 민족의 장래를 떠미고나온  
우리 후대들의 달성을 기우기 바  
쳐고 있다. 아들딸들로 조국보위조  
소에 세우고 자식들이 조국의 영예를  
빛내는것을 키키



#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의 앞장에서 새로운 영웅신화를 창조한 위훈 길이 빛나리

## 북변땅에 새겨진 기계화초병들의 값높은 자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말로써 대답할것이 아니라 자기 학률을 내대고 실현으로 대답하는것이 애국자의 자세입니다.』

북변땅에 전회화복의 가슴뜨거운 현실이 펼쳐졌다. 우후무후 천진처럼 웃어오른 사회주의선경미율들을 훌륭하게 꾸며 전원들의 위훈도 전한다.

### 심장에 안고 사는 글발

희망시와 무관, 역사글에 달려 행하고도 성자지 않아 운전기술과 이들이 불고불어간 불도불消의 운전장마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들의 전투로 지켜보게 신다』라는 글발이 게시되어 있다.

심장의 피를 끓이는 이 글발을 충청으로 높뛰는 가슴마다에 호아악은 부대의 기계화초병들은 전진으로 돌진하는 장갑차마냥 복구기적창조의 앞장에서 내달리고 있다.

9월 25일 연사군에 도착한 기계화초병들은 새벽 3시부터 주야간전투를 벌여 3일동안 어느 한 학교의 운동장과 주변에 1m가 될 땐 넓게 쌓여 있는 1만여m<sup>2</sup>의 강탕과 모래를 밀어내고 도로까지 형성해놓는 자랑찬 성과를 이루어냈다.

희망시 오봉지구 지대정리전투에 진입한 기계화초병들은 이른바로부터 차장이 널도록 하루 전투계획을 200% 넘쳐 수

### 조선인민군 최대호소속부대에서

어찌 이분이라.

운성과 경흥, 경원지구에 파견된 기계화초병들도 순간순간을 충청과 위험으로 놓여버렸다.

비단세월 강기습과 녹기습에 전막을 치고 낫파 밤이 따로 없는 공격전을 벌리는 전투원들의 모습은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고 있다.

피해복구전투에 참가한 인민군지휘성원들과 일꾼들, 인민들은 이들의 두통정신에 감동되어 자신들의 전쟁이 담긴 편지들을 보내어왔다.

그들이 보내온 수백통의 편

기계화초병들이는 궁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도록 사상교양사업을 전공적으로 벌리고 있다.

또한 50종에 5,000여점의 예비부속물을 마련하여 복도와 절을 다같이 높일 수 있는 공법들을 배워 주고 해군인들이 가상적인 모의훈련을 통하여 모든 작전명령들을 익숙되도록 하였다.

성성철, 정광철, 최철남, 김은철무를 비롯한 지휘관들도 피해복구전투에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시에 요구하는 높이에 서서 허리띠를 걸추하기 위해 이신작식의 보법으로 전투원들을 이끌어나갔다. 이들의 현신적인 모습은 원수님께서 우러불의 전투원들을 북구기적창조에 힘있게 휘두르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러불의 전투원을 지켜보게 신다!

### 위훈창조에 있어

지휘관들의 농축한 조직정치 사업과 활강한 전개력, 주도세밀한 짜연은 승리를 앞당기는 판관적고리이다.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부대의 일꾼들은 화선식정치사업을 청렴식으로 드세자세로 일리면면에 따라 앞서기, 따짜우기, 경기교환운동을 미루친 경쟁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전투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켰다.

총공격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전투장마다에는 『나를 놓아오도록 하자』는 구령을 치면서 경적의 돌파구를 열어제기는 지휘관들이 서 있었다.

부대의 책임임군인 피해연동부는 물류는 현장에 나가 전투원들을 위로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1500여m<sup>2</sup>의

도로를 범듯이 놓아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희망시 일군들과 인민들은 놀라움을 할수록 이것을 민족의 성과로 인정해 파티를 벌여놓았다.

# 어머니날을 맞으며 온 나라 가정들에 따뜻한 사랑과 행복이 넘쳐난다

## 축하를 받으시라

어머니님이 밝아왔다. 거리와 일대, 마을들은 명절일색으로 더욱 아름답게 단장되고 우리 어머니들의 아름다움을 살피 향기 헐쳐흐르는 방랑복과에서 어머니들에 대한 사랑깊은 찬가들이 꽂혀온 울려고 있다.

해마다 찾아오는 뜻깊은 날인 전간 울해의 맹길을 찾는 어머니들의 기쁨과 환희는 뉴타르다. 바로 울해에 우리 당백사에 걸어 세워진 조선로동당 7차 대회가 열리고 총성의 70일 전투가 벌어졌다.

역사적인 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전행된 70일 전투에서 지난 승리자의 영예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드리는 가장 뜨겁고 아름다운 선물이다. 북부지역에서 꽂혀나고 있는 전화위복의 기적들과 송도원의 하늘기에 지금도 울리는 뜻깊은 피해지역 이어

들의 노래소리는 두만강연안 어머니들만이 아닌 온 나라 어머니들에게 기쁨을 더해 주고 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고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여성들은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바치고 있습니다.»

어머니님!

조용히 불러보면 가슴가득 차 오르는 축적이 있다.

가장과 사회의 전진한 발전, 나라와 민족의 성장한 미래가 자기들의 역할에 떨려있다는 숭고한 사랑감과 책임감을 지니고 우리의 어머니들은 선군조선의 미래를 아름답게 기우고 있다.

후대들에게 대한 열렬한 사랑과

부강조국의 폐일에 대한 악관을 안고 자식을 위한 온갖 고생을 함께 여기며 선군혁명의 기동감을 울려 많이 기워내고 모든 자식들을 조국앞에 몇몇이 내세우기 위하여 사랑을 기울이고 온갖 정을 풀어놓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

하긴만 우리 어머니들은 그것으로 자기 할바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불타는 애국의 열정으로 조국 보위와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결구마디에서 순경한 팔방을 바꾸어 옷을 얼굴로 대하고 사회와 집단을 위해 현운을 초조처럼 태워온 우리 어머니들, 그 누구의 부탁도 천고도 없지만 자신하여 명사들의 선수이, 천 어머니가 되어 따뜻한 정을 품어기도 하고 스스로 영에 군인의 자목을 차지하는 늙은이들의 전자식이 되기도 하고 또 무모로 옮은 아이들을 데려다 죄어머니의 정을 기울여가는 그들이 의해 우리 사회의 인간사랑의 희열은 더욱 꽃만개에 가무어지고 있다.

혁명동지들과 이웃들을 자기의 친형우, 한식술처럼 여기며 진실을 바치는 불같은 흰신, 고상한 품성은 우리 사회의 생기와 힘, 집단의 힘을 백배로 더해 주고 서로 둘고 이끌며 회복하는 사회주의인 의사의 대봉모가 더욱 활짝 꽂여나게 하는 밀기들이 되고 있다.

태양의 따스로운 빛과 열을 떠나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들을 상장할 수듯이 위대한 수령의 자애로운 품을 떠나 오늘 우리 어머니들의 꽂들은 꽂은 꽃과 존엄, 인간적품으로 생각할 수 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 제1차 전한 미녀대회에서 연설하신 뜻은 날을 어머니날로 제정하고 도록 하여온 나를 둘로

시는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해마다 어머니들의 명절을 온 나라의 축복속에 의의 있게 경축하도록 세심히 가르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온 나라에 알려진 신의 주물정 회사업소로 토동자 최정순동부와

《강원땅의 금풀집》가족의 너인

노령여행가, 시대의 물로서의 영에 높이 뻗쳐버리는 개미와

화신을 표명하며 제4차 전국

어머니대회 참가자를 향해 헌사를 했을 때에는 한 너성이 있었다.

온 나라에서는 아름다운

꽃들이 떠나온 원수님은

오늘도 잊지 못하고 있다.

대를 이어 운명을 지켜주고

미래를 보살펴 주는 위대한

어버이를 모신 것에 이어 우리

조선녀성들이 밟아온 최상의

행운이며 최대의 행운이다.

하기에 역사에 끝에 끝에 있는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주자와 동료를

充滿하고 헤아리며 조여매면서도

조국의 미래에 후대들을

강성조선의 기동감으로 더 억세

제, 더 멋진 하제 키우고 애국의

행운을 다 바쳐 조국의 부강번

영에 참답게 이미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참되고 흥旺한 어머

니들을 둔든 것은 조국의 자랑이고

후대들의 자랑이다.

축하의 인사를 받으시라!

원수님시대의 복받은 어머니들

이여.

이 나라 아들딸들은 그대들이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나아가는

오후의 대고조선에서 물결의

루사, 시대의 꽃으로 삶의 자유

자유를 더욱 빛나게 수놓아가기로

더욱 행운하고 더욱 젊고 아름다

와지기로 일컬여 축복하고 있다.

변사기자 경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에는 더욱 깊어지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말씀하시였다.

«우리 여성들은 혁명의 한족수를 넘나드는 훌륭합니다.»

진정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 어머니들

를 떠밀고나가는 훌륭합니다.»

의 삶이 이처럼 값높이 빛을 뿐만 아니라.

뜻깊은 어머니날을 맞으며 우리 마음속에 있다.

어깨우에서 지주집마을에서 고된 땅에 벗겨주지 못한 흙

서른여섯나이에 《너희들을

넘은 이 어미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 세월에 아미

니의 모성애로는 도저히 지켜

줄수 없었던 비영속녀성의

삶이 따로운 세상에 빛발

아래 행운으로 떠밀려온 우

여행 님들이 끌어내게 되었다.

해방 6남매를 낳은 리영숙녀성의 어머니는 자식들의

어깨우에서 지주집마을에서

고생하는 한 너성이 있었다.

이렇듯 뜨거운 사랑속에

리영숙녀성은 조선로동당원의

값높은 영예를 지니고 조선민

주주의 인민공화국 로열영웅

칭호를 수여된 그녀는 그녀

를 지나고 경기장을 뛰어

나온 그녀는 한 나라에

고생하는 한 나라에

# 《100만초불이 지켜본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조기대선 실시하라!》

## 남조선 각계 박근혜 퇴진 투쟁 계속 전개

서울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박근혜 여도의 퇴진을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 층의 두성이 계속 불거지며 벌어지고 있다.

155여개 시민 사회단체 연대 조직인 박근혜에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은 13일 국민파 파워워인 권리은 없다고 하면서 12일의 100만여 초불집회를 치자지역으로 확대해 나갈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단체는 100여개의 지역으로 초불집회를 확대하여 19일에도 대규모의 푸동을 진행하며 그때까지 박근혜가 퇴진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26일에 친지역의 시민들이 서울로 모이자고 소회하였다.

정치 룽락의 주범인 박근혜를 국민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체는 박근혜는 이제 더 큰 초불, 국민의 저항과 부딪치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날 전례일제단의 주최로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전례일련사의 묘앞에서 역사에 대한 추도식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최순실

민주로총과 『한국로총』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추도식에서 발언자들은 전날 광화문광장을 훈운 국민의 합성을 돋과 권력이 아닌 인간 중심의 세상을 꿈꾸는 또 다른 경계의 위침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국민이 해야 할 일은 민중의 힘으로 최후의 일격을 하여 박근혜에 『정부』의 승리를 끌어놓는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민주로총과 『한국로총』 이 힘을 펼쳐 민주로총 위원장을 석방시키고 박근혜를 그 자리에 짚어 넣을 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14일 민주로총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의 무조직적인 퇴진을 요구하면서 민중의 『정권』 퇴진행동에 이르러 보자 적극적으로 함께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단체들도 이날 『전국 경제 인민 합창회』 『전경련』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었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최순실

추문 사건』과 관련하여 재벌들과 『전경련』, 『대통령』과 촉근사의 진정판에게 사실들이 험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대해서 언급하고 이 유착관계를 철저히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경유착의 고질적인 병질을 뿐만 아니라 그 장본인들이 재벌과 『전경련』에 풀려받을 것을 예상하여 박근혜를 밟았다.

그들은 재벌과 『전경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를 철저히 밟아야 한다고 그들은 밟았다.

학생들과 시민들, 장애자단체 성원들, 아동·성인원 등 각계 출판 참가자가 참가하는 『동네초보』 투쟁의 규모는 나날이 커가고 있다.

투쟁에 참가한 서대문구의 한 판매자는 주민들이 무엇인가 행정을 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동네초보』 투쟁에 참여해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

14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를 놓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한뉴스』는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지난 주말 100만 시민이 거리에 나와 초불을 끌어놓는 힘으로 박근혜 퇴진을 위한 압박수위를 높이기로 했고, 『전경련과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미·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설립은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이다』, 『전경련과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등이 전시되었고,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조기 대선 실시하라!』, 『박근혜에 퇴진』, 『박근혜 퇴진』 등의 손구호들은 단체성원들과 시민들

고 있다고 전하였다.

한편 서울에서 박근혜의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과 지하철도역 입구에서의 서명운동, 시국선언 등 다양한 형태의 투쟁이 확대되고 있다. 서대문구, 성동구, 관악구, 성북구, 마포구와 은평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등지에서 주민들과 소규모 단체들의 주최로 밤 8시 초불집회가 전개되고 있다.

학생들과 시민들, 장애자단체 성원들, 아동·성인원 등 각계 출판 참가자가 참가하는 『동네초보』 투쟁의 규모는 나날이 커가고 있다.

투쟁에 참가한 서대문구의 한 판매자는 주민들이 무엇인가 행정을 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동네초보』 투쟁에 참여해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

14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

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15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16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17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18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19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20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21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22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23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24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25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26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27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28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29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30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31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32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33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34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35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36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37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38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39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40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41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42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43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44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45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46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47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48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49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50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51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52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53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54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55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56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57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58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59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60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61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62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63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64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65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66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67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68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69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70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71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72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폐집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초불투쟁에 참여해 퇴진을 청탁하였다.

73일 남조선의 민주수호 대전 운동본부가 대전에서 피

